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실질적으로는 SLC라고 불러 저 이름은 아직도 외우지 못했다.
수업	난이도별 수업이 이루어졌다. 과목은 1대1 수업은 Reading, VOCA로 하루에 두 번씩 다른 선생님과 진행했고, Group수업은 TOEIC Speaking, Face to Face, MMC이다. 이 중 TOEIC Speaking만 하루에 두 번 수업하며 같은 선생님이다. 모두 난이도 별로 진행되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책이 본인의 실력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수업 또한 선생님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첫 주 (OT 주)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 8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되어 힘들게 생각된다. 그러나,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면 수업시간이 기다려지게 된다. 선생님들 또한 친절히 대해주시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다.
Activity	평일 액티비티와 주말 액티비티가 있다. 평일 액티비티는 주로 레크레이션으로 자기소개, 간단한 게임, 영화감상 등이다. 평일 액티비티는 보통 3-5PM 수업 대신 진행된다. 사실 평일 액티비티 활동자체는 그리 흥미롭지는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이 매일 채워져 있으니 수업대신 진행되는 액티비티 2시간은 굉장히 기다려진다. 주말 액티비티는 호텔 리조트, 요트투어, 수빅투어 등이 있다. 모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보통 수업이 끝난 5시 이후에 나가 대체로 한국의 가을 정도의 기온이었다. 얇은 긴팔에 긴바지를 입어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어도 좋은 날씨였다.

안전	기숙사에서는 24시간 가드가 대기하여 굉장히 안전했다. 소지품만 조심한다면 학교 밖의 시내에서도 안전하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세 명이서 한 방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그리고 매일 청소부 분들이 청소를 해주셔서 청결하다. 침대가 조금 딱딱했지만, 말씀드리니 바로 다음 날 바꿔주셨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 점심은 학교식당에서 해결했다. 대체로 한식이 나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식당 내에 파리가 너무 많아 불편했고, 치킨이 너무 자주 나왔다. 거의 매일 저녁을 외부식당에서 해결했다.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맛집을 다녔다. 물을 사먹어야 한다는 불편함만 제외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교통	FB, 버스, Tricycle, Taxi 등이 있지만, FB를 주로 이용한다. 14페소라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기숙사 앞에서 타기는 굉장히 힘들다. 기숙사 앞 까지 잘오지 않으며 불러도 굉장히 느리게 온다. (30분 소요) 기다리가 못참고 내려가 히치하이킹을 하기도 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식사, 선물 등)	600000	
합계	약 600000 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환전, E-TICKET 프린트는 필수이다. 이 외에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생필품은 그곳에서 사면된다. 하지만 가서 옷 사면 된다는 생각 절대하지 말고 옷 많이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가서 살 생각으로 안 갖고 갔다가 같은 옷만 계속 돌려 입게 된다. 가면 살만한 옷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도 아니라 예쁜 옷도 망설이게 된다. 그리고 겨울 시즌이니 긴팔 긴바지를 챙겼다.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아 긴팔 긴바지를 많이 입게 된다. 그리고 수영도 많이 하니 수영복은 필수이다. 환전을 넉넉히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스터카드를 따로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챙겨 매일을 기록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한 달이다. 가기 전에는 걱정이 앞섰었는데 가고 보니 모두 쓸데없는 걱정들이었다. 졸업식에는 선생님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펴펴 흘렸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다시 돌아가자며 친구들과 떼를 썼다.

선생님들이 워낙 유쾌하고 밝아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니 영어실력은 자연스럽게 늘고, 발음도 좋아졌다. 액티비티도 너무 즐거웠고, 체육대회도 정말 재밌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좋았던 시간은 바로 밤 수영이다. 필리핀은 공기가 맑아서 별이 신창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밤 수영을 하면 수많은 별들은 보며 수영을 할 수 있다. SLC 수영장도 좋지만, 호텔 수영장을 추천한다. 필리핀 물가에 비하면 비싼 편이지만, 10000원의 가격으로 루프탑 수영장과 호텔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잠이 많아서 아침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다. 그 대신 과일 잼이랑 빵을 마트에서 사서 먹었는데 수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배가 고파서 이 방법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후회 되는게 하나 있다면 환전이다. 나는 40만원을 추천받았고, 과소비 할 생각으로 50만원을 환전해갔다. 하지만 쓴 돈은 60만원이다. 나이키, 스타벅스가 굉장히 저렴해 욕심나는 것을 사다보니 돈을 추가로 인출하고, 카드도 사용해 돈을 예상보다 더 사용하게 되었다. 필리핀에서 카드와 인출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붙으니 애초에 환전을 더 할걸 그랬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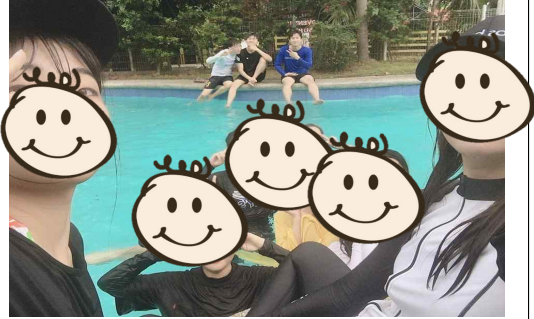
첫 날 SUBIC TOUR 현지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



SLC앞에서 FB기다리면서 매니저님과 대표님 애기와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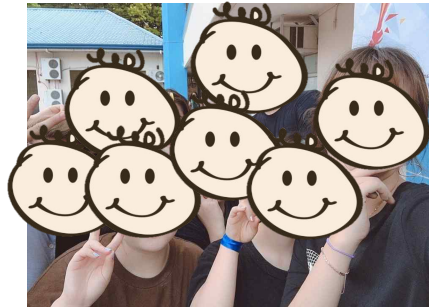
MMC촬영 후 SUBIC BEACH에서
노을과 함께 찍은 사진



요트투어 하고 온 날 SLC 수영장에서
다같이 논 날 찍은 사진



졸업식 날 MMC 그룹 2관왕 차지하고
메달이랑 찍은 사진



마지막 액티비티 체육대회
BLUE팀이랑 찍은 사진